

연중 제22주일 복음 나누기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너도 보답을 받을 것이다.”(루카 14,14)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루카 14,1.7-14
-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 14 1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7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8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9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 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10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12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13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14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음식 초대 받아가신 때의 일입니다.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수종병자를 치유하신 후, 복음에 나와 있듯이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는 것과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수종이 어떤 병인지 아시나요? 의학사전에 의하면, 수종은 신체의 조직 간격이나 체강(體腔) 안에 림프액, 장액(漿液)이 많이 괴어 있어 몸이 붓는 병을 말합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한 현재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는 아주 큰 병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살리시어 새로운 삶의 길을 예수님께서서는 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들은 또 안식일 법을 들먹이며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되묻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5절) 그들은 결국 말문이 막혀 버립니다.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의 병고에는 무관심한 그들이지만, 자신의 위상이나 잇속에는 너무나도 밝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게 되는 경우를 빗대어 일침을 놓고 계십니다.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8절)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10절)

예수님께서서는 ‘위로 올라가려는’, 그들의 교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11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명한 진리입니다. 당시 예수님보다 인지도와 인기가 더 많았던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한 3,30) 라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초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되값아 줄 수 있는 대상이며, 이해타산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초대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 등등...

과연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행하기에는 너무 손해를 보는 것이기에 행하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쏸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자선을 할 때, 단식을 할 때 티를 내지 말라고 말입니다. 티를 내면 세상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과 부와 명예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기에 말입니다. 그렇다고 티를 내지 않고 선행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 중에 젤로 소중하고 값진 것을 다양한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그분에게서 충분히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이미 하늘나라에 각인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나눠 보십시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